

거룩한 방파제반

교재

데이빗리목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 차 CONTENTS





서 론 들어가는 말 _ 5

제 1 장 창조의 질서와 거룩한 구별 _ 9

제 2 장 사랑과 죄의 분별 _ 19

제 3 장 역차별과 신앙의 자유 _ 29

제 4 장 다음 세대와 교육의 위기 _ 38

제 5 장 언론과 문화의 장악 _ 46

제 6 장 의료와 과학의 왜곡 _ 54

제 7 장 결단과 승리 _ 62

제 8 장 파쇄기도문 _ 70







서 론

/

들어가는 말

서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창조의 질서를 사수하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사야 58:12)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영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정점에 ‘남자와 여자’라는 거룩한 설계도를 그리신 이래, 사단은 끊임없이 그 형상을 왜곡하려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센 물결은 단순히 윤리적인 타락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인류의 기초인 가정과 다음 세대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는 치밀한 영적 학살의 음모입니다.

이미 서구 사회의 많은 국가가 ‘평등’과 ‘인권’이라는 달콤한 이름의 포도주에 취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창조의 질서를 내어주었습니다. 교회의 강단은 재갈이 물렸고, 부모의 양육권은 국가에 찬탈당했으며, 아이들의 교실은 성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은 이제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룩한 방파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악한 세력은 법과 문화, 교육과 의료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이 교재는 바로 이러한 영적 위기 앞에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안 하나를 반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

스도의 통치권을 대적하는 어둠의 진영에 맞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수호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 시대의 다니엘'이며 '에스더'입니다.

본 교재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부터 제7장까지는 성경 본문에 대한 심층적인 영맥 분석을 통해 창조의 원리와 구속사적 진리를 도출하였으며, 동시에 전 세계의 충격적인 데이터와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여 성도들이 이 전쟁의 실체를 낱알이 파악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8장은 이 모든 지식을 기도의 권능으로 바꾸어 하늘 보좌를 움직일 21일간의 승리 선포 기도문으로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며 기도로 연대할 때, 하만의 꾀계는 무너지고 유다인은 구원을 얻었던 반전의 역사가 이 땅에 재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열방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무너진 세계 교회에 다시금 창조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손에 든 모든 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한 손에는 기도의 방패를 들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이 그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주후 2026년 1월
데이빗리 목사





1 장

/

창조의 질서와 거룩한 구별

제 1 장 창조의 질서와 거룩한 구별

도입내용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거룩한 질서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창 1:28).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유기'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롬 1:24).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성별의 순리를 역리로 바꾸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복음의 입을 막으려는 영적 울무입니다. 성도는 이 법안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파괴 공작을 분별하고, 창조의 축복을 수호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1. 본문 심층 분석 및 문맥 이해

가.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의 주권

(1) 성경 구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 히브리어 '바라'(<ברא>)는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성별은 인간의 감정이 선택하는 기호품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인류의 보존을 위해 설계하신 양보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3) [악의 세력의 실체: 언어와 성별의 해체] 실제적인 데이터로 볼 때, 영국의 권위 있는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은 이미 '그(He)'나 '그녀(She)'가 아닌 중성적 대명사 '제(Ze)'를 공식 등재했습니다. 이는 언어를 통해 성별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시도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사용자 성별 옵션을 58개 이상으로 세분화했으며, 미국 뉴욕시는 본인이 주장하는 성별 대명사로 불러주지 않을 경우 최대 25만 달러(약 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4)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 형상은 남녀의 고유한 정체성 안에서만 온전히 드러납니다. 성별을 해체하는 것은 인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얼굴을 지워버리려는 영적 공격입니다. 인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지킬 때 비로소 가장 존엄하고 온전해집니다.

나. 생육의 복과 통치 질서의 위기

(1) 성경 구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2) [실제적 수차: 인구 구조의 붕괴] 하나님은 남녀의 연합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으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들은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ONS)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 비혼 관계 출생아 비율이 51.3%를 기록하며 결혼 부부 출생아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이는 가정이 생명 잉태의 거룩한 울타리 역할을 상실하고 법적으로 해체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3) ‘다스리라’는 뜻의 ‘라다’<רָדָה>는 창조주의 뜻대로 질서를 유지할 ‘청지기’의 사명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법으로 억압하려 합니다.

(4) [한국의 상황: 입법 시도의 긴박함] 현재 한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차례 이상 발의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창세기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입법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발의된 안안에는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교회의 재정적 파멸과 복음의 입막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 정욕의 유기와 사회적 역차별의 실체

(1) 성경 구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 [실제적인 악현상: 여성 안전의 파괴] 2021년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며 치마를 입은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으나, 학교는 차별금지 정책 때문에 이를 은폐했습니다. 또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는 여성 경기에 출전하여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하며 여성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3) [법적 독재: 입증 책임의 역전] 차별금지법은 일반 법과 달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지목당한 성도나 목회자가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최하 5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증거가 없어도 '불쾌감'만으로 고소할 수 있게 하여 성도를 법적으로 고립시키는 '현대판 종교 재판'입니다.

2. 구속사적 진리 도출

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모형 수호

(1) 성경 구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

[엡 5: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2) 남녀의 가정은 그리스도(신랑)와 교회(신부)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룩한 예표입니다. 사단이 법을 통해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진짜 목적은, 인류가 복음의 핵심인 '거룩한 연합'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시각적 교재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3)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론이 흔들리고, 결국 구원의 신비마저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성별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모형을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언약 자손의 보존과 영적 계보의 파수

(1) 성경 구절: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말라기 2장 15절)

(2) [충격적 수치: 아동 성 정체성 혼란의 폭증] 영국 성소수자 치료 클리닉 타비스톡(Tavistock)의 통계에 따르면, 성전환을 고민하며 방문한 아동·청소년 수가 2009년 77명에서 2018년 2,590명으로 무려 3,260% 폭증했습니다.

(3) 이는 학교 현장에서 '젠더 교육'을 의무화한 결과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성별은 선택'이라는 가짜 복음을 심어 신앙의 대를 끊으려는 치밀한 구속사적 방해 공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진리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3. 영적인 적용과 교훈

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과 교회적 분별

(1) 성경 구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2) '평등'이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겨진 복음 파괴의

[말 2:15] 여호와께는 영이 유여하시리라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3) 수천만 원의 벌금이 두려워 진리를 타협하는 대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풍조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목소리로 입법 저지를 위해 외쳐야 할 때입니다.

나.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파수꾼의 결단

(1) 성경 구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 자녀들에게 미디어나 학교에서 배우는 잘못된 가치관을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소중한 남자(혹은 여자)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영적 훈련입니다.

다. 기도의 연대와 무너진 성벽의 재건

(1) 성경 구절: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11]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2) 차별금지법과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말뚝을, 한 손에는 기도를 들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보호합시다.

(3)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지키는 깨어있는 '기도 특공대'를 찾고 계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심정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의 불을 지킵시다.





2 장

/

사랑과 죄의 분별

제 2 장 사랑과 죄의 분별

도입내용

세상은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죄인을 인격적으로 긍휼히 여기되,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의 돌로부터 보호하셨지만,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생명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가장 잔인한 법'입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되 죄는 철저히 분별하는 거룩한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1. 본문 심층 분석 및 문맥 이해

가. 정죄를 넘어선 구속적 긍휼

(1) 성경 구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요한복음 8장 10절)

(2)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수단으로 삼아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죄인인 여인을 인격적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3) [실제적 위협: 기독교 혐오 프레임의 확장] 현재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기독교를 '차별 선동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미국 최대 인권단체인 SPLC는 성경적 성윤리를 고수하는 기독교 단체들을 '증오 집단(Hate Group)'으로 분류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4)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정죄가 아닌 '회복'입니다. 우리는 여인을 죽이려는 돌을 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죄의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5) 주님이 여인을 홀로 마주 보며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듯, 우리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되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죄의 법'과는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장을 가진 성도의 자세입니다.

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단호한 선포와 보건적 진실

(1) 성경 구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2) 주님의 용서는 죄의 정당화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탈출'을 전제합니다. 만약 주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방관이었습니다.

(3) [충격적 보건 데이터: 죄의 대가] 한국 질병관리청(KDCA)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규 에이즈(HIV) 감염인 중 10~20대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주요 감염 경로의 약 90% 이상이 남성 간 성 접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남성 동성애자 그룹이 일반인보다 매독 감염률이 수십 배 높다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4) [탈동성애자들의 증언] 미국 '탈동성애 운동(Changed Movement)'의 보고에 따르면, 동성애 생활을 정리한 이들은 하나같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증언합니다. 참된 사랑은 이들에게 질병과 고통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생명의 음성을 '정신적 고통을 주는 차별'로 규정하여 법적으로 금지하려 합니다. 이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복음의 비상구'를 법으로 용접해 폐쇄하는 악한 시도입니다.

다. 진리를 가두는 법적 재갈과 실제적 피해 사례

(1) 성경 구절: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32]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 [실제적 사례: 상담의 자유가 사라진 캐나다와 호주] 캐나다는 2022년 '전환치료 금지법(Bill C-4)'을 통과시켜,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자녀에게 성경적 상담을 해주는 부모나 목회자에게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2021년 '변화 또는 억제 관행 금지법'을 시행하며, 동성애 성향을 바꾸기 위해 '기도해 주는 행위'조차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성경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신성모독입니다.

(4) [한국의 긴박한 위협: 입증 책임의 역전] 한국에 발의된 법안들 또한 교육, 상담 현장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명시합니다. 만약 기독교 상담소에서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청년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유한다면, 이를 ‘심리적 고문’이나 ‘인권 침해’로 규정하여 수천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구속사적 진리 도출

가. 구속은 죄의 수용이 아닌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1) 성경 구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흑암 속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빛의 나라로 옮기는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3) 차별금지법은 흑암의 상태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하여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통로를 차단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치밀한 영적 공작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신부를 정결케 하는 교회의 사명

[에베소서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성경 구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에베소서 5장 26-27절)

(2) 주님은 교회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 내부에 세속적 가치관을 강제로 주입하여 신부 된 교회의 정결함을 훼손하려 합니다.

(3)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3. 영적인 적용과 교훈

가. '가짜 사랑'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선포하십시오

(1) 세상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 '포용'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영적 유기'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되, 그가 죄와 결별하도록 목숨 걸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법적 제재와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겁한 방조입니다.

나. 상담과 양육의 현장을 사수하는 영적 파수꾼

(1)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짓 복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명확한 성경적 성윤리와 보건적 위험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2) 법이 성경을 금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적 상담 체계를 견고히 세워 성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맙시다.

다. 고난받는 증인들을 위한 거룩한 연대

(1) [실제적 피해자: 바론넬 스터츠먼과 애런 클라인]
미국의 꽃집 주인 바론넬 스터츠먼은 동성 결혼식 장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년간의 소송 끝에 수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오리건 주의 제과점 주인 애런 클라인 부부는 동성 웨딩 케이크 제작 거부로 13만 5천 달러(약 1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2)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지금 입법을 저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난이 닥친다면,

고립된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교회가 함께 짐을 지는 '거룩한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선에 나설 때입니다.





3 장

/

역차별과 신앙의 자유

도입내용

세상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지만 그 실상은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입을 막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역차별'의 도구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의 위협을 무릅썼던 것처럼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성도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려 합니다. 특히 이 법은 다수의 역차별을 정당화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현대판 다리오 왕의 금령'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으로 세상의 불의한 법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우선시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1. 본문 심층 분석 및 문맥 이해

가. 신앙을 범죄로 만드는 악한 법의 출현

(1) 성경 구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관원과 유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 6장 7절)

[다니엘 6: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관원과 유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2)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법(금령)'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충성됨을 흠잡을 수 없자, 오직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세상 법을 만들어 신앙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3) [실제적 위협: 평등으로 포장된 종교 탄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이라는 선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성경적 신앙 고백을 '차별'과 '혐오'로 둔갑시켜 처벌하는 법입니다.

(4) [실제적 데이터: 영국의 평등법 피해] 2010년 평등법이 시행된 영국에서는 기독교인 입양 위탁 부모인 오웬과 은조부(Owen & Eunice Johns) 부부가 "동성애는 죄"라는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입양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법원은 "평등법이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범죄가 되는 현대판 사자굴의 모습입니다.

나. 다수의 안전과 권리를 박탈하는 역차별

(1) 성경 구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

장 10절)

(2) 다니엘은 법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도들이 '전에 행하던' 경건한 삶과 표현을 역차별합니다.

(3) [실제적 악현상: 여성 공간의 침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B 132' 법안은 수감자가 스스로 선언한 성 정체성에 따라 교도소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 결과, 여성 교도소로 이송된 생물학적 남성 수감자에 의해 여성 수감자들이 임신하거나 성폭행당하는 비극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4) [스포츠계의 역차별]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Lia Thomas)는 남성 선수 시절 400워권이었으나, 여성으로 성전환 후 전미 대학 수영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을 노력해온 여성 선수들은 메달권에서 밀려나는 역차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별의 구분을 무너뜨린 결과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입을 막으려는 징벌적 배상과 이행강제금

(1) 성경 구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다니엘 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니엘 6장 14절)

[다니엘 6:14]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2) 세상의 권력자들도 때로는 법의 부조리를 알지만, 일단 제정된 ‘악법’은 통치자조차 통제하기 힘든 파괴력을 가집니다. 한국에 발의된 법안은 더 치명적입니다.

(3) [실제적 수차: 징벌적 손해배상의 공포] 한국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행위로 지목될 경우 피해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최하 500만 원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합니다.

(4) [현대판 사자굴: 직업 박탈] 캐나다의 의사 레지나 워트(Regina Watteel)는 성전환 수술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죽음(실직, 파산)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2. 구속사적 진리 도출

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

(1) 성경 구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다니엘 6장 22절)

(2) 구속사는 세상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대적하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법이라는 이름의 '사자'를 풀어 성도들을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3) 우리가 역차별을 감내하면서도 이 법을 막아서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남은 자(Remnant)의 증거

(1) 성경 구절: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찌니" (다니엘 6장 25-26절)

[다니엘 6: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6:25]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다니엘 6:2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찌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지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 다니엘의 고난과 승리는 결국 이방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차별의 시대에 성도가 겪는 고난은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영적인 적용과 교훈

가. 다니엘과 같은 영적 결단을 내리십시오

(1)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타협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기도를 금하고 진리 선포를 막는다면, 우리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벌금과 감옥이 두려워 진리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 법을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입니다.

나. 공적 영역에서의 거룩한 저항과 참여

(1) 성도는 골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 입법 과정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통계와 논리로 대중을 현혹하는 악한 세력의 실체를 폭로해야 합니다.

(2) [실제적 행동] 기독교 법률가, 의료인, 교육자들과 연대하여 이 법이 가져올 역차별의 실례를 사회에 알리는 '지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1) [실제적 위로] 전 세계적으로 이 법에 맞서 승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303 크리에이티브' 판결을 통해, 그리스도인 디자이너가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동성 결혼식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표현의 자유 승리).

(2)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연대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한국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역차별의 파고를 기도로 넘어섭시다.





4 장

/

다음 세대와 교육의 위기

제 4 장 다음 세대와 교육의 위기

도입내용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신앙의 대를 잇게 하는 거룩한 명령을 주셨습니다(신 6:4-9).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주입하여 자녀들의 영적 정체성을 파괴하려 합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된 국가들에서는 부모의 교육권보다 국가의 왜곡된 교육 지침을 우선시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부모를 범죄자 취급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신앙의 미래이자 구속사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학살의 실체를 직시하고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진리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1. 본문 심층 분석 및 문맥 이해

가. '쉐마' 이스라엘과 신앙 전수의 명령

(1) 성경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
할 것이며” (신명기 6장 4-7절)

(2)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과 권한을 '부
모'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지런히 가르
쳐야 합니다.

(3) [실제적 위협: 부모 권리의 박탈] 포괄적 차별금
지법은 '국가'가 부모의 신앙 교육권보다 위에 서게
만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3년 'AB 665'
법안을 통해, 12세 이상의 아동이 부모의 동의 없이
도 스스로 성 정체성 상담을 받고 주거 지원(가출 쉼
터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실상 부모의 훈육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4) [충격적 데이터: 학교 현장의 성교육] 영국에서는
'RSE(관계 및 성교육)'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을 긍정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를 거
부하고 자녀를 해당 수업에서 빼내려 했던 기독교인
부모들이 학교로부터 고발당하거나 제재를 받는 사
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 혼란을 심는 가짜 복음과 정체성의 붕괴

[신명기 6:4] 이스라엘
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6:5] 너는 마음
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
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
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6] 오늘날 내가 네
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7] 네 자녀에
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
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
론할 것이며

(1) 성경 구절: "또 그것을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 (신명기 6장 8-9절)

(2)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생각(미간)과 삶의 기준(문설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교육은 그 자리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새겨 넣으려 합니다.

(3) [충격적 수치: 성별 불쾌감 아동의 폭증] 영국 성소수자 클리닉 타비스톡(Tavistock)의 통계는 매우 참혹합니다. 2009년 성전환 상담을 받은 아동이 77명이었으나, 젠더 교육이 강화된 2018년에는 2,590명으로 약 33배(3,260%)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성전환 희망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교육과 미디어가 아이들의 정체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4) [한국의 현실: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동성애의 보건적 위험성(에이즈 등)을 교육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현상은 법적 강제성을 띠게 되어 교실은 '진리의 불모지'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명기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

다. 언어와 사상을 통제하는 영적 세뇌

(1) 성경 구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아이들에게, 세상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느낌’을 신으로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느끼는 것이 곧 너의 성별이다”라는 가르침은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3) [실제적 사례: 대명사 사용 강제] 미국 버지니아 주의 교사 피터 블래밍(Peter Vlaming)은 여학생으로 성전환한 학생에게 남성형 대명사(He)를 쓰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신념상 여성형 대명사(She)를 부르는 것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진실을 말할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4) [캐나다의 비극]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성전환 시술을 반대할 경우, 이를 ‘아동 학대’로 간주하여 아동보호국이 자녀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도달하고자 하는 종착역인 ‘가정 파괴’입니다.

2. 구속사적 진리 도출

가. 다음 세대를 향한 사단의 영적 학살

(1) 구속사에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꺾기 위해 다음 세대를 공격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내아이들을 죽이라 명했듯(출 1장),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듯(마 2장), 오늘날 사단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의 칼을 들어 아이들의 영혼과 정체성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나. 남은 자(Remnant)를 키우는 가정의 사명

(1) 세상 교육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최후의 보루로 세우셨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남은 자'로 자라게 하는 것이 이 시대 가장 시급한 구속사적 과제입니다.

3. 영적인 적용과 교훈

가. 가정 예배의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1) 이제 학교 교육에만 자녀를 맡겨둘 수 없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직접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적 성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실제적 지침] 주 1회 이상 자녀와 함께 차별금지법의 실태를 나누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왜 소중한지 토론하며 기도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나.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1) 교회는 세상 교육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강력한 '성경적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상이 70여 가지 젠더를 가르칠 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다. 입법 저지를 위한 적극적 목소리를 내십시오

(1) [실제적 행동] 학부모 단체와 연대하여 교육청의 잘못된 성교육 지침에 항의하고,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교실은 영적 전쟁터에서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킬 기회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5 장

/

언론과 문화의 장악

제 5 장 언론과 문화의 장악

도입내용

사단은 법 제정에 앞서 언론과 문화를 통해 대중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으나(사 5:20), 오늘날 거대 미디어와 문화 권력은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성경적 진리를 '편협한 증오'로 뒤바꾸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문화적 흐름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여, 언론이 복음의 진실을 보도하는 것조차 '혐오 표현'으로 제재하려 합니다. 성도는 화려한 문화의 가면 뒤에 숨은 영적 독소를 분별하고, 대중문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사수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1. 본문 심층 분석 및 문맥 이해

가. 선악의 기준을 뒤바꾸는 문화적 기만

(1) 성경 구절: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이사야 5장 20절)

[사 5:2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2)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적 도덕 기준이 무너진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문화 권력은 성경이 금하는 '역리'를 '다양성'이라는 단 이름으로 포장하고, 창조의 '순리'를 지키려는 성도들을 '쓴 것(악한 것)'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3) [실제적 데이터: 미디어의 성소수자 노출 급증] 미국의 미디어 감시 단체인 GLAAD(글래드)의 2022-2023 보고서에 따르면, 프라임타임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캐릭터의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11.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실제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미디어가 대중에게 동성애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익숙하게 만드는 '문화적 세뇌'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헐리우드와 디즈니의 변화] 어린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의 상징인 디즈니는 최근 작품들에 동성애 캐릭터와 키스 장면을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즈니의 경영진은 향후 콘텐츠의 캐릭터 중 50% 이상을 성소수자나 소수 인종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가치관을 태어날 때부터 오염시키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도 지침과 독소 조항

[롬 1:32]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1) 성경 구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

(2) 세상 언론은 진리를 말하는 입을 막고, 죄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지지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3) [한국의 상황: 인권보도준칙의 재갈] 한국 기자회견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맺은 '성폭력·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보도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적 진실을 알리는 기사조차 '차별 조장'으로 몰아 비공식적인 검열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시의 언론 탄압]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자율적 준칙이 강제적 법규가 됩니다.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에서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을 올릴 경우, 플랫폼 기업은 '차별적 콘텐츠'라며 강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유럽의 기독교인 유튜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언급했다가 계정이 삭제되거나 '증오 발언' 혐의로 조사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 문화적 압력과 기업의 'PC(정치적 올바름)' 강요

(1) 성경 구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2) 사단은 대기업과 경제 권력을 이용해 기독교 가치관을 압박합니다. [실제적 수치: 기업 평등 지수 (CEI)]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HRC(Human Rights Campaign)라는 단체가 매기는 기업 평등 지수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 동성애 옹호 마케팅을 강행합니다.

(3) [미국 타겟(Target) 마케팅 사례]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겟은 어린이용 '트랜스젠더 수영복'을 판매하고 동성애 지지 코너를 만들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불매 운동으로 시가총액 15조 원이 증발하는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화 권력이 자본과 결탁하여 얼마나 공격적으로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 증거입니다.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 구속사적 진리 도출

가. '바벨론' 문화의 재림과 성도의 구별

(1)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은 화려한 보석과 포도주로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계 17장). 오늘날 화려한 영상미와 감동적인 서사로 포장된 동성애 옹호 문화는 현대판 바벨론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사람들을 죄에 취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진리의 증언자로서의 사명

(1)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로서 주류 문화의 타락에 저항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듯, 성도는 세상이 제공하는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결한 양식을 지켜내야 합니다.

3. 영적인 적용과 교훈

가. 미디어 리터러시(분별력)를 키우십시오

(1) 성도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단순히 재미로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2) [실제적 지침] 자녀와 함께 영화를 본 후, "이 영화의 메시지가 성경의 창조 질서와 맞는가?"를 반드시 대화하십시오. 세상이 '선'이라고 포장한 독소를 말씀의 여과기로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강화와 지지

(1) 악한 문화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선한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2) [실제적 행동]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 반성경적 콘텐츠가 올라올 때 적극적으로 시청 거부와 항의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도와 행동

(1)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언론의 재갈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2) [실제적 대응] 보건의적 진실과 성경적 가치를 보도하는 기독교 매체들을 구독하고 그 기사들을 널리 공유하여, 세상 언론이 가린 진실이 대중에게 전달되도록 '복음의 전령'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6 장

/

의료와 과학의 왜곡

제 6 장 의료와 과학의 왜곡

도입내용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오묘하게 지으셨으며 각 사람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모든 신체 조직을 하나님의 설계도 아래 두셨습니다 (시 139:13-16).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학적 진실보다 주관적인 기분을 우선시하며 멀쩡한 신체를 훼손하는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처방을 '의료적 인권'으로 옹호합니다. 특히 의료인이 양심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성전환 시술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 합니다. 성도는 인위적인 약물과 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현대 과학의 오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수호해야 합니다.

1. 본문 심층 분석 및 문맥 이해

가. 모태에서부터 정해진 생명의 설계도

(1) 성경 구절: "주께서 내 장부를 만드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질이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시

편 139장 13-15절)

(2) 시편 기자는 인간의 신체가 하나님의 세밀한 '조직(weaving)'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DNA와 염색체(XX, XY)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장(印章)입니다.

(3) [의학적 데이터: 성별의 불변성] 인체의 약 37조 개에 달하는 모든 세포에는 성별 정보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통해 외형을 바꾸고 호르몬을 주입해도 세포 단위의 성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는 과학이 증명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경계입니다.

(4) [실제적 위협: 의료진의 양심 자유 박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의료인이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소신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을 '진료 거부'나 '차별'로 규정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산부인과 의사 연합은 성전환 관련 시술을 강요하는 정부 지침에 맞서 현재까지도 처절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 인위적 훼손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

(1) 성경 구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

[시편 139:13] 주께서 내 장부를 만드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시편 139: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15]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질이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편 139장 16절)

(2)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과 신체적 특징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를 거스르는 성전환 시술은 하나님의 설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육체적·정신적 파멸을 초래합니다.

(3) [충격적 데이터: 성전환 후의 삶] 스웨덴에서 30년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Long-term Follow-up of Transsexual Persons), 성전환자들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19.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별을 바꾼다고 해서 내면의 혼란이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의학적 증거입니다.

(4) [보건적 진실: 질병의 위험성]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의 성 접촉은 에이즈(HIV)뿐만 아니라 매독, A형 간염 등의 감염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남성 동성애자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항문암 발생률이 최대 17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보건적 진실을 알리는 행위조차 '혐오'로 낙인찍으려 합니다.

다. '디트랜지션(De-transition)'의 증가와 후회

[시편 139:16]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 성경 구절: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장 14절)

[시 139: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
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영혼이잘아나이다

(2)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완벽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최근 서구권에서는 성
전환을 후회하고 다시 본래 성별로 돌아가려는 '디트
랜지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 [실제적 사례: 키이라 벨(Keira Bell)] 영국의 키이
라 벨은 사춘기 시절 학교와 병원의 권유로 성전환 수
술을 받았으나, 20대가 되어 이를 깊이 후회하며 수
술을 허용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녀는 "당시 병원은 내 심리적 고통을 돌보기보다 호
르몬 차단제부터 처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4) [의료의 정치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의사들에
게 '성별 불쾌감'을 느끼는 아동에게 즉각적으로 호르
몬 요법을 시행하도록 압박합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
서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를 '아동 학대자'
로 간주하여 양육권을 박탈하는 근거로 이 법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2. 구속사적 진리 도출

가. 성전(聖殿)인 몸을 훼손하는 영적 공격

(1) 성경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고전 6:19). 사단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성전인 인체를 인위적으로 훼손하고 생식 능력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경건한 자손의 탄생을 원천 봉쇄하려 합니다.

[고전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 창조주의 고유 권한에 대한 도전

(1)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의학 기술을 빌려 성별을 바꾸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드셨다"고 주장하는 현대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구속사는 인간의 교만을 꺾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3. 영적인 적용과 교훈

가. 의학·보건적 진실을 널리 알리십시오

(1) 동성애와 성전환의 미화된 모습 뒤에 숨겨진 육체적 질병과 자살 충동,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고통의 실체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2) [실제적 지침] 주일학교와 청년부에서 보건 전문가를 초청하여 성경적 성윤리가 우리의 육체적 건강도 지키는 길임을 교육하십시오.

나. 의료 현장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 기독교인 의사, 간호사, 상담가들이 법적 위협 앞에서도 창조 질서를 지키는 양심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2) [실제적 행동] 이들이 법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기독교 의료인 연합 단체들을 후원하고 영적으로 지지하십시오.

다. '디트랜지션' 청년들을 품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1) 세상의 거짓에 속아 신체를 훼손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돌아올 때, 정죄가 아닌 복음의 치유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7 장

/

결단과 승리

제 7 장 결단과 승리

도입내용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만의 악한 꾀계가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영적 하만의 올무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에 4:14-16). 우리는 이 전쟁이 단순히 법안 하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수호하는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 우리를 '왕후의 위'에 세우셨으며, 우리가 기도로 연대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1. 본문 심층 분석 및 문맥 이해

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1) 성경 구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

스더 4장 14절)

(2)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침묵하는 것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님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곧 불신앙이며, 결국 자신도 그 멸망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실제적 위기: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 한국은 전 세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장 오랫동안(2007년부터 현재까지 19년째) 막아내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서구 사회의 많은 교회가 “설마 통과되겠어?” 하며 방심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통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창조 질서의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때’입니다.

나. 생명을 건 기도의 연대

(1) 성경 구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14]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 이아닌지 누가아느냐

[에스더 4: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2) 승리의 비결은 '다 모으고'와 '금식'에 있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악법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지만, 온 성도가 기도로 연합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3) [실제적 데이터: 한국 교회의 저력] 2024년 10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무려 110만 명(주최측 추산)의 기독교인이 광화문에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와 거룩한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로,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려는 한국 교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영적 통계입니다.

다. 하만의 올무가 무너지는 반전의 역사

(1) 성경 구절: "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더 7장 10절)

[에스더 7:10] 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2)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유다인을 멸절시키려던 하만의 법령은 오히려 하만 자신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3) [실제적 승리의 증거: 해외의 변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먼저 경험한 서구권에서도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아동들에게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부모 교육권 보호법'이 통과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아동 성전환 클리닉 타비스톡이 부작용 문제로 폐쇄되는 등 진리가 다시 승리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구속사적 진리 도출

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

(1)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그리스도)과 뱀의 후손(사단)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사단은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언약 자손의 정체성을 훼손하려 하지만,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맞서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 남은 자(Remnant)를 통한 거룩한 씨앗의 보존

(1)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한국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거룩한 신앙의 계보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3. 영적인 적응과 교훈

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무장하십시오

(1) 세상의 비난이나 법적 불이익이 두려워 진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2) [실제적 지침]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관을 선포하고, 어떤 사회적 압박 앞에서도 "동성애는 죄이며, 성별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 기도의 성벽을 높이 쌓으십시오

(1) [실제적 행동] 제1장부터 제6장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거룩한 대한민국과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특공대'가 전국 교회로 확산되어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다. 진리를 위한 연대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1)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

(2) [실제적 대응]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운동, 지역 구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 전달, 올바른 보건 지식을 전하는 유튜브 영상 공유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룩한 연대'에 동참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악법을 막아내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8 장

/

포괄적차별금지법 파쇄기도문

제 8 장 포괄적차별금지법 파쇄기도문

도입내용

영적 전쟁의 최종 병기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기도로 파쇄해야 합니다.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매일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1일간의 집중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한국 교회를 지키시고 거룩한 나라로 재건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1일차: 하나님의 창조 주권 수호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휘몰아치는 거대한 인본주의의 물결과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악한 시도들 앞에서 애

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와 조화 속에 온 우주를 설계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며, 그 성별의 다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신비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무서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성별이 무엇인지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귀한 성별의 경계를 인간의 감정과 기분으로 허물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 시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의 '바라'<בָּרָא>의 권능을 조롱하고, 생물학적 진실과 영적 질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의 위정자들과 입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만드는 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보편적 진리와 자연의 섭리를 수호하는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도가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거짓된 평등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사 창조의 근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이 땅에 발의된 모든 반성경적 법안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와 통치만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의 부패한 사상을 씻어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아,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성별의 경계를 허물려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들으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명하신 그 창조의 선언은 영원불변한 진리이며, 그 어떤 세상의 법이나 권력으로도 폐기할 수 없는 하늘의 법도임을 선포하노라!

인간이 스스로 성별을 창조할 수 있다고 유혹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인격의 기초를 흔드는 모든 인본주의적 궤계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진리를 가두려 하는 모든 입법 시도와 악한 계획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대!

위정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미혹의 비늘은 벗겨질지어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 언론과 문화를 통해 스며드는 가짜 평등의 논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대!

성별은 인간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창조주의 주권적 설계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노라.

"내가 느끼는 것이 나다"라고 주장하며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교만의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
질지어대!

한국 교회의 강단은 더욱 담대해질지어대!
목회자들의 입술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죄를 죄라
고 말하는 사자 같은 용맹함이 회복될지어대!
성도들의 심령에는 영적 분별력이 임하여 세상의 달
콤한 거짓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지어대!
대한민국은 열방의 거룩한 방파제가 될지어대!

서구 사회를 무너뜨린 성 해체 물결이 이 땅에 상륙
하려 할 때, 기도의 성벽에 부딪혀 산산이 조각날지어
대!
하늘의 천군 천사는 동원되어 이 나라의 법과 교육과
문화를 지킬지어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우리가 진리
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어둠의 진영은 자중지란을 일
으키고 물러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
하노라!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시고, 그 거룩한 연합을 통해 생명이 탄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도전과 타락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를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해 창조의 빛을 보존해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를 창조 질서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전 세계가 악법 앞에 무릎 꿇을 때에도 대한민국만은 기도의 무릎으로 버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법을 만들고 세력을 모아 진리를 압박하는 듯 보이나,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110만 성도가 광장에 모여 한목소리로 거룩을 외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잠들었던 파수꾼의 사명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어, 국회에 발의된 악한 법안들이 하나둘 폐기되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현장의 거짓된 교육 속에서도

오직 창조주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소중한 성 정체성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 꾀했으나 도리어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렸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악한 계획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하나로 묶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사 열방의 무너진 창조 질서를 재건하는 모델로 사용하실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확정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일차: 거룩한 가정의 울타리 보호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만복의 근원되시며 인류의 첫 공동체인 가정을 친히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무너져가는 이 땅의 가정들을 바라보며
찢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
게 하심으로 인류 역사의 기초인 가정을 세우셨습니
다.

그 거룩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셨
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통로
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쳐놓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 가정의 존엄
성이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결합을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하고, 동성 결합이나 비정상적인 형태의 연대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악한 시도들이 끊이지 않
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가정들이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락
한 법령에 의해 침탈당하지 않도록 불성벽이 되어 지
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의 근간이 송
두리째 뿌리 뽑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주신 가정의 울타리를 허물어뜨려 인류를 영적·육체적 불임 상태로 몰아넣으려는 치밀한 계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부부들이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거룩한 가정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존립의 최우선 과제를 깨닫게 하시고, 가정의 정의를 뒤바꾸려는 모든 입법 계획이 즉각 중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무너진 가정의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음란하고 패역한 풍조가 집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문설주를 바르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 나라의 소망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게 하옵소서.
특히 경제적 유혹이나 문화적 압박 때문에 가정의 가치를 포기하는 이들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가정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복된 가정들이 우후죽순 일어나 악법의 파도를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거룩한 울타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대!

‘다양한 가족’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동성 결합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의 결합인 가정의 정의를 왜곡하려는 모든 입법 시도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산될지어대!

가정 해체의 배후에서 역사하며 음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악한 영들아, 이 땅의 모든 가정과 교회에서 즉시 손을 떼고 물러갈지어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성경적 가정을 지키려는 성도들의 입을 막고, 가정 교육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모든 악한 법령은 하늘의 불로 심판을 받을지어대!
위정자들의 심령에 박힌 가정 파괴적 사상들은 뽑혀
나갈지어대!

하나님이 "한 몸"이라 명하신 거룩한 연합을 조롱하
고 파괴하려는 모든 미디어와 문화적 선동들은 예수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힘을 잃고 사라질지어대!
대한민국은 거룩한 가정의 가치를 지켜내는 전 세계
의 등불이 될지어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 속에 스며든 혼란의 영들은 묵
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대!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을 지키는 것임을 선포하
노래!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는 가정의 파수꾼으로 일어날
지어대!

가정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지어대!

사단이 쳐놓은 가족 해체의 덫은 산산이 조각나고, 도
리어 이 위기를 통해 한국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더 단
단하게 결속될 것을 선포하노래!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다 자신이 장대에 달렸듯, 가
정을 무너뜨려 교회를 말살하려던 악한 법안들이 도
리어 한국 교회를 깨우는 도구가 될지어대!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의
가정 위에 영원히 군림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하노라!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의 위기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이미 하늘에서 승리의 응답을 예비하셨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가정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제아무리 거세게 가정의 가치를 조롱하고 법으로 억압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권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깨워 가정 수호의 선봉에 서게 하시고, 110만 성도가 한마음으로 거룩한 가정을 외치게 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에 감사합니다.

이미 서구 사회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미리 기도의 성벽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법자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가정을 해치는 악법의 독소 조항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폐기되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 풍조를 이길 영적 거장들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쳐놓은 올무가 오히려 교회를 정결케 하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반전의 기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의된 모든 악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의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차: 자녀들의 영적 정체성 보존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다음 세대의 주인이시며 어린아이들이 주께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학교와 미디어라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 노출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인격체로 보내주셨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이 교육 현장에 뿌리내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가짜 복음이 진리인 양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미혹하는 이 영적 학살의 현장을 주님의 권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너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아이들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창조주를 부정하게 만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학교 교실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게 하옵소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위정자들이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시고, 보건적 진실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조레

와 법안들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에게 자녀의 영혼을 지킬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옵소서.

학교 교육에만 우리 아이들을 맡겨두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연대하여 진리의 방파제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조롱과 압박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엄한 남자다, 여자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자부심을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결코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청소년들이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

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모든 젠더 이데올로기와 미혹의 영들은 지금 즉
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대!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아이들에게 죄
를 가르치며 성별 해체를 선동하는 모든 악한 교육 지
침과 법안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파쇄될지어
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오염시키는 음란한 교과서
와 미디어 콘텐츠들은 이 땅에서 영구히 사라질지어
대!

교육계의 배후에서 역사하며 성경적 가치를 조롱하
는 어둠의 세력들은 들으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너희가 결코 만질 수 없는 거룩한 씨앗임을
선포하노라!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
게 만드는 모든 사상적 진들은 무너질지어대!

교육부와 교육청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어대!

진실을 가리는 거짓의 비늘은 벗겨질지어대!

우리 아이들의 미간에는 오직 여호와와 말씀만이 새
겨질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도 하나님의 진리

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한국의 모든 주일학교와 기독교 학교들은 진리의 성
채로 일어날지어다!

교사들의 심령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이들을 죽
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될
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
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
는 리더들로 성장할지어다!

사단이 다음 세대를 향해 쏘는 모든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에 부딪혀 소멸될지어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대
한민국 다음 세대는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될지어다!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
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진리의 성벽을 쌓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교육 현장은 어두워 보이
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
람들을 남겨두셨음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주님의 천군 천사를 파

송하시어, 악한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의 귀와 눈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잘못된 교육들이 하나둘 실체가 드러나고, 부모들이 깨어나 학교 현장에 목소리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에서 젠더 교육의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목소리가 한국에 전달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막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찬란하게 빛날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다음 세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기도로 아이들의 앞길을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오는 선교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질 날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일차: 부모의 신앙 교육권 사수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라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국가 권력이 부모의 고유한 신앙 양육권을 침해하려는 위태로운 현실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국가나 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가정에 자녀를 맡기셨고, 부모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칠 제사장적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제 부모의 가르침을 '편견'으로, 신앙 교육을 '차별'로 규정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고 방종하게 살아가는 것을 권리로 포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부모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서구의 비극이 이 땅에도 상륙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권력의 시도를 막아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인권 침해가 되는 이 모순된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결코 통과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입법자들이 천부인권의 기초가 가정이며, 자녀 양육의 주권이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옵소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어 부모의 입을 막고 신앙 교육을 방해한다면, 이 나라의 가정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칠 때, 그 어떤 법적 제재나 사회적 비난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부모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모든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는지 면밀히 살피게 하시고, 잘못된 교육 지침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권리로 단호히 항의하며 교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침묵하여 자녀들의 영혼을 국가에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부모들의 영적 훈련소가 되어,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지 구체적인 지혜를 나누는 거룩한 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 문설주에 여호와의 법이 기록되게 하시고, 국가 권력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신앙의 성역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양육권을 찬탈하려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신앙 교육을 차별로 몰아 부모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모든 독소 조항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영구히 폐기될지어다!

가정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어 신앙의 전수를 차단하려는 사회주의적 사상과 악한 계획들은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국가 권력의 배후에서 가정 해체를 획책하는 악한 영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부모는 자녀의 영적 보호자이며 제사장임을 선포하
노니, 이 거룩한 권위를 흔들려는 모든 법적·문화적
압박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지어다!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의 심령에는 영적 분별력이 임
할지어다!

학교의 잘못된 성교육 수업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날지어다!

위정자들은 가정의 자율성을 존중할지어다!

한국 교회는 자녀 양육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룩한 혁
명의 진지가 될지어다!

부모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기도를 들고
자녀들의 영혼을 사수하는 영적 방패가 될지어다!

세상 법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 법만을 가르칠 것을 선포하노라!

사단이 쳐놓은 가정 교육의 족쇄는 끊어지고,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부모들이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
아 더 강력한 말씀 전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
리 가정의 신앙 교육권은 영원히 보존될지어다!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가정의 주권을 국가가 가로채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성역을 창세 전부터 보호해 오셨음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들을 붙드시고 세상의 거짓 가르침이 틈 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잠에서 깨어나 학교 교육 현장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학부모 연대를 통해 악한 지침들을 막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구 사회의 부모들이 겪는 고통의 사례들을 미리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큰 위기에 빠지기 전에 기도로 무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법안의 독소 조항들이 세상에 낱알이 공개되어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와 가정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국가 권력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신앙 세대가 길러지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자녀들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기도의 권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부모의 신앙 교육권을 가장 존중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끝내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일차: 동성애의 영적 결박 해제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이 자유인 줄 착각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성별의 연합 속에 거룩한 생명력을 담으셨으나, 타락한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저버리고 역리의 길을 택했습니다.

동성애라는 영적 흑암에 갇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육체적 질병과 심리적 불안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을 '다양한 성적 지향'이라고 포장하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사단의 치밀

한 궤계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미혹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는 거짓된 과학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려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죄를 죄라고 말해주는 진리의 음성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성경적 상담과 치유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이들을 향한 참된 사랑과 단호한 진리를 동시에 갖추게 하옵소서.

정죄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명하셨던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동성애라는 영적 결박에서 풀려난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된 삶이

세상의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도덕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음란의 영을 대적하여 거룩한 정절을 지키
게 하옵소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시는 주님, 동성
애의 사슬에 묶인 자들을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
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 령)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사람들의 영혼을 동성애라는 음란의 밧줄로 묶어 파
멸로 끌고 가는 모든 미혹의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
금 즉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대!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여 죄를 정당화하고, 진리
를 선포하는 입을 막으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배
후 세력은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욕을 심는 더
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물
러갈지어대!

죄를 다양성이라 속이고, 역리를 순리라 주장하며 세
상을 혼란케 하는 모든 거짓된 이론과 철학들은 파쇄

될지어대!

언론과 문화 속에 스며들어 동성애를 미화하는 모든
어둠의 선전물들은 힘을 잃고 사라질지어대!

동성애의 늪에 빠진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대!

그들의 눈을 가린 흑암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대!

주 예수의 보혈이 그들의 심령에 뿌려져, 참된 정체성
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대!

한국 교회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
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성소가 될지어대!

목회자들은 동성애가 죄임을 담대히 선포하여 영혼
들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될지어대!

탈동성애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 죄에서 자유케 된
자들의 찬양이 온 땅에 가득할지어대!

사단이 쳐놓은 음란의 덫은 산산이 조각나고, 도리어
수많은 청년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부흥이 임할
것을 선포하노라!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으며, 대한민
국은 거룩한 성도들의 나라가 될지어대!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금홍의 풍성한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
로 씻어주시고, 오늘 동성애의 결박 아래 있는 영혼들

을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예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를 부추기고 법으로 옹호하려 하지만,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승리할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미 동성애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은 수많은 증인을 우리 곁에 두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동성애의 영적 실체를 폭로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이 싸움이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법자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주셔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이 하나씩 막히고 무너지는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이 거룩의 가치를 발견하고, 음란한 문화에 저항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셨으니, 이 혼란한 시대를 통해 오히려 더 강력한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군사로 부르시고, 기도로 어둠의 진영을 파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 탈동성애 운동이 일어나고,

무너진 성경적 성윤리가 다시 세워지는 선교적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일차: 보건의적 진실의 드러남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진실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은폐 속에 가려진 보건의적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신체적 파멸의 실태를 알리는 입술을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틀어막으려 합니다.
보건의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혐오가 되고, 다음 세대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양심적 외침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 거꾸로 된 세상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에이즈(HIV) 감염과 각종 성병의 실태가 인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우리 청소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관리청과 보건 당국, 그리고 언론의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동성애의 성적 행태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정직하게 보도하게 하시고, 인권보도준칙이라는 이름의 재갈을 풀어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의 미화된 모습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져올 끔찍한 신체적 고통과 질병의 실상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감추어진 데이터들이 공개될 때 비로소 우리 국민이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건적 진실을 외치는 의료인들과 시민단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가 법의 장벽을 뚫고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동성애와 성전환의 보건적 위험성을 가리고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모든 거짓의 장막은 지금 즉시
걸혀질지어대!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인권보도준
칙의 사슬과 악한 지침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
지어대!

질병의 위험을 인권으로 둔갑시켜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미혹의 영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대!

보건적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모든 세력은
수치를 당할지어대!

가려진 에이즈 감염 통계와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 수
치들은 만천하에 낱알이 공개될지어대!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땅의 모든 교육
현장과 미디어는 보건적 진실을 말하는 파수꾼의 사
명을 회복할지어대!

진실을 가두려는 모든 법적 시도는 수포로 돌아갈 것
이며, 오직 생명을 살리는 진리만이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진실을 억압하려 하지만, 깨어 있는 보
건 전문가들과 성도들을 통해 동성애의 위험성이 널
리 알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보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별금
지법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국민의 양심
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려졌던 통계들이 하나둘 드러
나게 하시고, 많은 부모가 진실을 알고 자녀를 보호하
기 위해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거짓의 비늘이 벗겨질 때 수많은 영혼이 죄의 길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보건 국가로 삼으
사 열방에 진리의 표준을 제시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7일차: 생명 설계도 DNA의 보존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신묘막측하게 우리 몸을 조직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체의 신비와 생명의 설계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 시대의 오만을 주 앞에 회개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세포 하나
하나에 변하지 않는 성별의 인장을 새겨 주셨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설계를 수정
하려는 무서운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신체를 칼로 베어내고 인위적인 호르몬을 주
입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바꾸려는 성전환 수술
이 '의료적 권리'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환 수술의 참혹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신음하
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생 약물에 의존해야 하고, 생식 능력을 상실하며,
결국 깊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이 비참한
현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는 이 비극을 멈
추어 주시옵소서.
특히 의료인들이 양심에 따라 성전환 시술을 거부할
때 이를 '차별'로 처벌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
소 조항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의학계가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시술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체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보존하
게 하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생명 설계도인 DNA와 성별의 법칙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려는 모든 의학적 교만은 꺾여질지어다!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요법을 인권으로 미화하여 사람의 몸을 훼손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의료계 내부에 침투한 반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성별은 바꿀 수 없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노라!

호르몬 차단제로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생식권을 탈취하는 모든 악한 의료 지침은 폐기될지어다!

성전환을 후회하고 본래 성별로 돌아오려는 '디트랜지션'의 목소리들이 강물처럼 일어나 거짓을 폭로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의료계는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거룩한 전문인 공동체로 거듭날지어다!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우리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의학 기술이 제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설계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성전환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은 이들이 증언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수많은 청소년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창조의 섭리를 수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인의 양심을 억압하려던 시도가 무산되고, 도리어 생명의 존엄성이 재확인되는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8일차 입법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의 변화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입법의 중심인 국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공의로
운 법을 세워 백성을 보호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대적
하고 다수 국민의 양심을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고, 소수의 인권을 앞세
워 다수의 신앙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위정자들의 어
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대한민
국에 닥칠 영적·사회적 재앙을 그들이 미리 보게 하시
고, 당리당락을 떠나 오직 국가의 백년대계와 천부인
권의 가치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기독 국회의원들이 먼저 깨어나 에스더와 같은
사명감으로 이 악법을 막아서게 하옵소서.

그들이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

하게 하시고, 거짓된 여론에 굴복하지 않는 강단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찬양하고 보호하는 거
룩한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 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모든 어
둠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지어대!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미혹의 비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벗겨질지어대!

입법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교회를 압박하고 진
리를 가두려 하는 모든 악한 사상은 뽑혀 나갈지어대!

국회 내에서 악법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그 궤계는 스스로 무너질지어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의로운 지도자들만이 굳게 설지어대!

대한민국 국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법
적 방파제가 될지어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는 모든 정당의 시도와 정치적 야합은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산산이 조각날지어다!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왕들의 마음을 냇물과 같이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국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년 동안 수많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 주시고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진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악법을 추진하던 자들이 스스로 돌이키거나 그 영향력을 잃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도와 일치하는 거룩한 법체계로 거듭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국회가 더 이상 죄를 짓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를 확정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9일차: 법조계의 양심 회복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공의의 재판장이시며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법조계를 위해 간구합니다. 법
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법 체계가 인본주의적
인권론에 매몰되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들의 심령을 붙들여 주시옵소
서. 그들이 세속적 가치관이나 특정 이데올로기에 휘
둘리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자연법과 하나님의 창
조 질서 위에 굳건히 서서 판결하게 하옵소서.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동성 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판결이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결코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법적 해석을 통해 사실상의 차별금지법 효과를 내 보려는 모든 시도를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법조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무엇이 국가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법정이 오직 진리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 같이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법치라는 이름 뒤에 숨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처벌하려 하는 모든 불의한 법적 논리들은 무너질지어대!

법조계 내부에 침투하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대!

재판관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물러갈지어대!

대한민국 사법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법을
존중하는 공의로운 보루로 회복될지어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판례도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할지어대!
법조인들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 법정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변호할지어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의를 굽게 만드
는 모든 불의한 세력과 정치적 압력은 사법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할지어대!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정의의 하나님, 불의한 판결을 막아 주시고 법조계 내
부에 의로운 목소리를 남겨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법조인들이 깨어나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을 논리적으
로 밝히게 하시고, 법률가 단체들이 연대하여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법이 제아무리 성도를 압박하려 해도, 결국 하
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
실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법부의 분위기가 쇄신되고, 창
조 질서를 수호하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법조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법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해질 날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일차: 언론과 방송의 정직한 보도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모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중의 생각과 가치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
과 방송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론은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대 미디어 권력은 동성
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하고 반대하는 목소리
를 증오와 혐오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론의 양심을 깨워 주시옵소서. 인권보도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원천 봉쇄
하고, 에이즈의 위험성 같은 보건적 진실을 가리는 불

의한 보도 행태를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송 제작자들과 기자들의 심령 속에 진실에 대한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시청률이나 특정 사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를 통해 영적으로 오염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옵소서.

거짓을 선전하는 언론의 입은 봉해 주시고, 진리를 파수하는 정직한 언론인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히 기독교 언론들이 더욱 깨어나 세상 미디어가 가린 진실을 온 국민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전령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언론계가 더러운 문화의 하수구가 아니라 진리의 강물이 흐르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하여 동성애를 미화하고 대중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모든 어둠의 선전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진실을 알리는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모든 인권보도
준칙과 악한 규제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
질지어대!

방송계의 배후에서 문화적 세뇌를 주도하는 악한 영
들아, 이 땅의 미디어 매체에서 즉시 손을 떼고 물러
갈지어대!

거짓을 선포하는 입들은 부끄러움을 당할지어대!
보건적 진실과 성경적 가치를 보도하는 정직한 기사
들이 포털과 방송을 장악할지어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미디어의 흑암은 빛의 이름
으로 물러갈지어대!

대한민국 모든 방송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
는 건전한 문화의 장으로 회복될지어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여
진리를 탄압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지어
대!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참된 빛이 되시는 하나님,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성도들이 진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대 언론들이 침묵할 때 기독교 매체들과 유튜브 등

을 통해 진실의 조각들이 대중에게 전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거짓된 문화에
저항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언론계의 양심 세력들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할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
다.

방송 매체들이 정화되어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건강한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뚫고 승리하는 진리의 빛을 이 땅의 언론을 통
해 보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유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
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일차: 교육계의 성경적 가치관 회복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다음 세대의 주인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
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매일의 삶을 보내는 교육
현장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학교 현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 가르치며, 동성애의 보건적 위험성은 철저히 가린 채 그것을 권리로만 가르치는 왜곡된 교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육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나쁜 조례들과 교육 지침들이 폐기되게 하시고, 창조의 섭리와 보편적 도덕 가치를 존중하는 올바른 교육 과정이 수립되게 하옵소서. 특히 학교 현장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고자 애쓰는 기독 교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빛을 발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교실이 어둠의 세뇌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질과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룩한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오염시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교육계의 어둠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대!

학생인권조례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강제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탄압하려는 모든 악한 지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폐기될지어대!
교과서 속에 숨겨진 성 해체 사상과 유물론적 인본주의는 그 실체가 드러나고 수정될지어대!

아이들의 순수한 심령에 거짓을 심는 미혹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대!

교육 행정가들의 눈을 가린 비늘은 벗겨질지어대!

대한민국 모든 학교는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며 보편적 진리를 가르치는 거룩한 전당으로 회복될지어대!

기독교 교사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실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승리자가 될지어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음 세대를 영적 불임 상태로 만들려는 사단의 교육 공작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지어대!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참된 스승 되시는 하나님, 교육 현장의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려는 부모들과 교사들을 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현장의 잘못된 성교육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자녀 교육의 위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육을 통해 신앙의 대를 끊으려던 원수의 계략이 도리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반전의 기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과서가 개정되고, 아이들이 창조 신비를 노래하는 교실로 변화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수축하시고 기독 대안학교들을 통해 거룩한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만유의 주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일차: 문화와 예술계의 정화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아름다움의 근원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중의 정서와 가치관을 사로잡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술적 달란트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으나, 사단은 이를 가로채어 동성애를 미화하고 타락한 성문화를 세련된 예술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 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영적 오염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영상과 음악, 연극과 전시를 통해 은밀하게 스며드는 동성애 옹호의 흐름을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예술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노래하는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 세상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문화라는 이름의 바벨론 포도주에 취해 선악을 분별

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중의 감각이 정화되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 시절부터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되어 영혼이 병들어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문화계가 음란의 하수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선포하는 거룩한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술과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죄를 선이라 하며 독소를 퍼뜨리는 모든 어둠의 미적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대!

대중문화의 배후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조롱하는 모든 악한 영적 흐름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앞에 파쇄될지어대!

사람들의 감성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타락한 콘텐츠들은 이 땅에서 힘을 잃고 소멸될지어대!

대한민국 문화계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올지어대!

진리를 노래하고 창조의 신비를 찬양하는 거룩한 예술가들이 구름 떼처럼 일어날지어대!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음란과 무질서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의 모든 문화 공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무대가 될지어대!

사단이 쳐놓은 문화적 덫은 산산이 조각나고, 오직 하늘의 아름다움만이 이 땅의 정서를 덮을지어대!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남
은 자들을 보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대 자본이 동성애 영화와 드라마를 쏟아낼 때에도,
많은 성도가 분별력을 가지고 시청 거부와 불매 운동
으로 저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문화 콘텐츠의 부작용이 드러나게 하시고, 대중
이 다시금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를 찾게 하실 줄 믿기
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문화예술계가 정화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명작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무너진 문화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룩한 예술가들이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술이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일차: 기업과 경제계의 자유 수호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경제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
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본의 힘을 빌려 신앙을 압박하
는 경제계의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 기업들이 'ESG 경영'이나 '다양성
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동성애 옹호 마케팅을 강요하
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경영자나 근로자들을 직
장 내에서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기업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옵소서.

기업 내에서 성경적 양심을 지키려다 불이익을 당하

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영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눈앞의 이익이나 세상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는 청지기적 기업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업 내 성소수자 우대 정책이 오히려 대다수 근로자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의 현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 권력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성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경제계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직하고 거룩한 기업들이 복을 받아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본과 권력을 무기로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억압하고 기업 문화를 오염시키려는 모든 어둠의 경제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대!

기업 경영 속에 독소처럼 퍼진 '정치적 올바름(PC)'의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케팅 계획은 예수
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대!

직장 내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모
든 차별금지 사규와 악한 지침들은 파쇄될지어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
하는 거룩한 일터로 회복될지어대!

기독교 경영자들은 요셉과 같이 일어나 경제계의 흐름
을 바꾸는 리더들이 될지어대!

돈의 힘으로 교회를 압박하려는 모든 사단의 꾀계는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지어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의 경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 같이 흐르는 축복의 현장이 될
지어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직장에서 머리가 되
고 꼬리가 되지 않는 승리를 맛볼지어대!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일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치열한 경제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성
도들을 지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려 하지만, 우리 성도
들이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업들의 잘못된 동성에 옹호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
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기업들이 다
시금 보편적 가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기에 감사합
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독교 경영자들이 깨어나고, 성경
적 경영 원리가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직장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경제적 풍요가 선교
를 위한 도구로 쓰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경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
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확정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일차: 의료계의 성경적 양심 수호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치유의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거룩한 부름을 받은 의료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은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고치
는 데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의료계는 멀쩡

한 신체를 훼손하는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요법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인들의 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의학적 진실보다 주관적인 기분을 우선시하는 광기 어린 흐름에서 이 땅의 병원과 의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성전환 시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비극이 이 땅에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의료인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우하는 거룩한 직업 윤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히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환자들에게 수술 칼이 아니라 성경적 상담과 진정한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참된 치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의료계가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생명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

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생명의 법칙을 거스르고 의술을 파괴의 도구로 사용
하게 만드는 모든 의료계의 어둠의 영들은 결박을 받
고 떠나갈지어대!
성전환 수술을 의료적 권리라 속이며 의료인들의 양
심을 억압하려는 모든 악한 지침과 법안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대!
인체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려는 교만한 과학의 모
든 시도는 수치를 당할지어대!

대한민국 모든 병원과 의료 기관은 하나님의 창조 질
서를 존중하는 생명의 장이 될지어대!
기독교 의료인들은 성령의 지혜로 무장하여, 환자들을
영육 간에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지어대!
의료계 내부에 침투한 반성경적인 윤리 위원회와 사
상적 압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
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의 의료 시
스템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존하고 생명을 귀히 여
기는 거룩한 체계로 회복될지어대!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의료 현장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
는 의료인들을 남겨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의학적
목소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많은 청년이 수술의 위
험성을 깨달아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료계가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객관적 사
실과 생명 윤리 위에 서게 하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
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의료계 내에 성경적 윤리가 확립
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치유의 역사가 가
득하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의료인들의 양심을 법으로 묶으려던 악한 계획이 도
리어 의료계의 영적 각성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하
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가장 가까이에서 묵도하는 의료인들
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
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
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일차 한국 교회의 영적 연합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영적 파도 앞에서 한국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사단은 교묘한 논리로 교계 내부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인권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법 앞에 일부 지도자들이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에 한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소한 차이를 뒤로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거룩한 전쟁에 기도의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옵소서.

대형 교회부터 개척 교회까지, 도시 교회부터 농어촌 교회까지 이 시대의 엄중함을 깨닫고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기도로 연대할 때, 하만의 꾀계가 무너졌던 에스더 시대의 기적이 이 땅에 재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의 성벽을 높이 쌓는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한국 교회 내부를 분열시키고 진리를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모든 이간계의 영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가리고 성도들을 방관하게 만드는 미혹의 안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걷혀질 지어다!

교회의 하나 됨을 방해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적 흐름은 무너질지어다!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과 단체들은 기도의 띠로 강력하게 결속될지어다!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일체의 타협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기준이 될지어다!

잠자는 성도들은 깨어날지어다!

한국 교회는 거대한 기도의 함포가 되어 사단의 진영을 파쇄하는 무적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모든 강단은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선포의 장이 될지어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며, 한국 교회의 연합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늘의 권세가 될 것을 선포하노라!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차별금지법이라는 위기가 도리어 한국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각자의 사역에 매몰되었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로 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0만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거룩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한국 교회가 아직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씨가 되어 전국 곳곳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연합의 힘으로 악법이 영구히 폐기되는 승리의 날을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교회의 연합이 단순히 법안 저지를 넘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

니다.

끝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일차: 목회자들의 담대한 선포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종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강단을 지키는 목회자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세상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교묘한 언어로 목회자들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설교 한 번에 수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위협과 사회적 비난의 화살이 강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진리를 희석하거나 침묵하는 비겁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고 담대히 외치는 사자 같은 용맹함을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먼저 차별금지법의 영적 실체를 낱알이 파헤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닥칠 위기를 파수꾼의 심정으로 알리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수술하는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시고, 죄를 죄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정직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세상 법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양 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거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강단이 복음의 순수성을 되찾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발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목회자들의 입술을 봉하고 강단을 위축시키려는 모든 두려움의 영과 침묵의 사슬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끊어질지어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진리 선포를 범죄로 몰아가려는 모든 악한 법적 궤계와 세상의 위협은 무너질지어다!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타협의 손을 내밀게 만드는 미혹의 영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강단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를지어다!

목회자들은 세상을 깨우는 시대의 나팔수로 일어날지어다!

죄를 책망하고 창조의 질서를 선포하는 목소리가 사자후처럼 온 땅에 울려 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회자들을 고립시키고 공격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은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물러갈지어다!

주의 종들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권세로 세상의 풍조를 꾸짖는 영적 사령관으로 우뚝 설지어다!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환난의 때에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는 충성된 종들을 한국 교회에 남겨 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눈물로 제단을 적시며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법이 제아무리 강단을 위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며 결국 승리할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목회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영적 각성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의 담대한 선포를 통해 성도들이 깨어나고 거룩한 나라를 향한 열망이 타오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일차: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우리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 거대한 거짓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평등', '인권', '차별 금지'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성도가 이 법의 독소 조항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의 '사랑'과 세상의 '포용'을 혼동하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의 심령에 영적 리트머스 종지와 같은 예리한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복음 파괴의 의도를 꿰뚫어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스마트폰과 미디어 속에서 쏟아지는 동성애 옹호 문화에 젖어 들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무엇이 영혼을 죽이는 역리인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성경적 성윤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다수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노아와 같은 영적 지조를 갖게 하옵소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눈을 떠 어둠의 진영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자원하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성도들의 영안을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미혹의 영과 인본주의적 사상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인권이라는 가면을 쓴 사단의 모든 꾀계는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날지어다! 성도들을 무관심과 방관의 잠에 빠뜨리는 잠재우는 영들은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대한민국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날지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모든 거짓 논리를 파쇄하는 지적 군사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내에 스며드는 모든 반성경적인 가치관은 힘을 잃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든 성도들이 일어날 때,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진리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지어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속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법만을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거룩한 분
노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는 영상과 글들이 성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게 하시고, 잠들었던 평신도들
이 일어나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
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사단이 쳐놓은 모든 그물이
보이고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가 영적 전문가가 되어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거짓된 여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8일차: 기도 특공대의 확산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불꽃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싸움은 정치가나 법률가들의 싸움이 아니라 무릎으로 싸우는 영적 파수꾼들의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기도 특공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눈물로 제단을 적시는 권사님들로부터, 광장에서 외치는 청년들까지 기도의 띠로 강력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마주하며 애통해하게 하시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법안 저지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음란과 배교의 영을 몰아내는 거룩한 향연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 5만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의 함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이라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
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무명의 기
도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이 이 땅의 거룩한
토양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기도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부르짖
음을 통해 악한 법령들이 영구히 폐기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 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대한민국의 기도를 방해하고 성도들의 무릎을 악하
게 만드는 모든 영적 방해 세력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불길을 끄려 하는 모든 냉소와 불신앙의 영들
은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하늘 문은 열릴지어다!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 악
한 영의 진영을 타격하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될지어
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승리하는 나라가 될지어다!

모든 교회와 가정은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는 기도의
전초기지가 될지어대!

기도의 용사들은 구름 떼처럼 일어날지어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의 진영은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그들의 궤계는
스스로 노출될지어대!

기도의 화력이 국회와 법정과 교육 현장을 덮어 모든
독소 조항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을 선포하노래!
승리의 기치가 대한민국의 모든 산천에 높이 들릴지
어대!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늘
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악법의 시도들을 막아 주
셨음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
국적인 기도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
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거룩한 방파제

로 우뚝 서고, 전 세계에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는 모델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사단이 쳐놓은 덫이 기도의 칼날 앞에 끊어지고 있음을 영안을 들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시고 끝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일차: 다음 세대 리더들의 부흥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점령하고 그들을 영적 불임 상태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거룩한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짜 평등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하

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신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영적 리더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혁명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들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동성애의 허구성과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자신의 언어로 논리 있게 설명하며 친구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통해 전 세계 열방의 청년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신앙의 계보를 완벽하게 이어가는 거룩한 언약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진화론적, 유물론적, 젠더주의적 견고한 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대!

청년들을 중독과 음란으로 몰아넣는 어둠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대!

다음 세대의 영적 계보를 끊으려는 사단의 모든 공작은 완전히 실패할지어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성령으로 혁명될지어대!

청년 리더들은 창조 질서의 수호자로 일어날지어대!

학교와 일터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구름 떴처럼 일어날지어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청년들의 가치관 속에 박힌 세상의 가짜 복음은 뽑혀 나가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들의 심령을 지배할지어대!

대한민국 차세대 리더들은 열방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을 선포하노래!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소망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감

사를 드립니다.

세상 교육이 아무리 아이들을 흔들어도,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실족하지 않게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청년이 깨어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앞장서며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전 세계 무너진 신앙의 기치들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씨앗으로 보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20일차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영향력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온 땅과 만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찬양합니다.

서구 사회의 많은 국가가 이미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에 무너져 신앙의 자유를 잃고 창조의 질서가 해체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무너진 자신들의 교회를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 한국 교회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끝까지 막아냄으로써, "성경적 가치관으로도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증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승리가 대한민국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투쟁과 기도의 모델이 이미 무너진 유럽과 북미의 교회들을 깨우는 영적 각성제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거점이 되어, 그 땅의 악법들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재건하는 영적 독립군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창조 질서의 최후 보루가 되어, 무너진 열방의 성벽을 다시 쌓는 '보수하는 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통해 전 세계에 성경적 성윤리가 회복되는 거룩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성 해체와 반기독교적 법령의 어둠의 물결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룩한 방파제 앞에서 멈춰설지어대!

한국 교회의 승리의 함성이 열방으로 퍼져나가 무너진 교회들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지어대!

세계 도처에서 차별금지법을 폐기하려는 거룩한 저항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날지어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창조 질서 수호의 종주국이 될지어대!

한국 교회가 발신하는 진리의 메시지는 열방의 모든 거짓 논리를 파쇄하는 하늘의 미사일이 될지어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구 사회를 사로잡았던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법이 다시 존중받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대!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 선교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창조 질서 위에서 열방이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선포하노라!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열방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부족한 한국 교회를 전 세계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아, 전 세계 많은 나라가 한국 교회의 연합과 승리를 주목하며 희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법률가들과 전문가들이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나누며 진리의 길을 제시하게 하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전 세계의 무너진 가정과 교육을 다시 살리는 기폭제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의 빛을 켜던 나라들을 이제는 영적으로 도와주는 장자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완벽한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일차: 승리의 확신과 영광

가. 간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요청)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1일간의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단련시키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확신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한 올무는 주님의 권능 앞에 이미 그 힘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대적들은 기세등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확정 지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승리의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회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평생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끝까지 거룩을 유지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나타난 이 승리의 증거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만

방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나. 선포기도 (악한 영과 환경을 향한 권세 있는 명령)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대한민국을 멸절시키려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하만의 꾀계는 완전히 무너졌도다!

이 악법을 획책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자취를 감출지어다!

사단의 견고한 진은 파쇄되었고, 진리의 기치가 대한민국의 국회와 법정과 모든 학교 위에 높이 세워졌도다!

대한민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노라!

성도들의 기도는 승리의 개가로 바뀌었으며, 한국 교회는 열방을 향해 호령하는 승리자의 위엄을 갖추었도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모든 역리와 순리를 거스르는 죄악의 물결은 마른 땅처럼 마를

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만이 이 강산을 덮을지
어다!

우리는 이겼도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
셨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다. 감사기도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한 확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이 영
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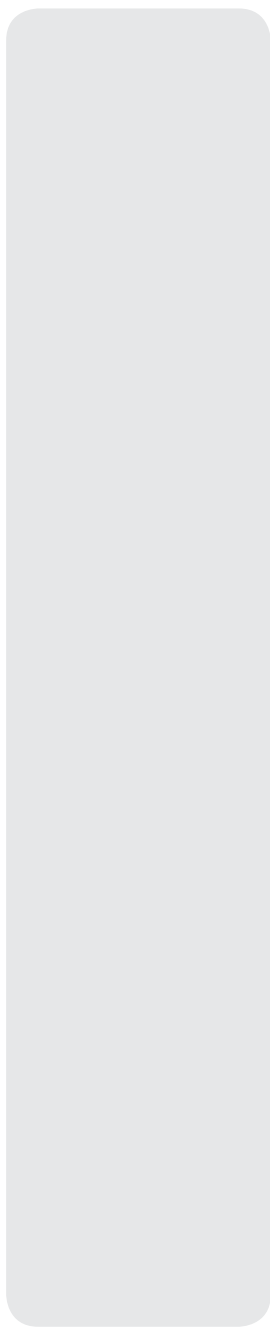
21일 동안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붙드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신 성령님
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위기가 도리어 한국 교회
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키고, 세상을 향해 빛을 발
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모든 기도 제목이 현실이 되어 악법은
폐기되고 창조의 질서가 견고해질 줄 믿고 미리 감사
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버리지 않으시고,
전 세계의 영적 자존심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꿈을 꾸는 세상을 보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합니

다.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방파제반 교재

초판 발행 2026. 1. 21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